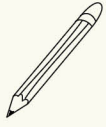


# 국가장학금 지급 개선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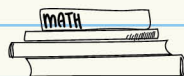


2013년도 000대학교에 재학 중인 △△의 경우, 본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을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한 결과 5분위 (연간 소득인정액 4,112만원 이하)에 해당하여 2013학년도에 국가장학금(1유형) 112.5만원을 지급받음.  
그러나 ◇◇와 그 가구원의 경우 연간 금융재산(정기예금)이 1,000만원이 존재하여 이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한 경우 6분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 90만원을 지급받아야함.

▶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 활용으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함.  
2015년 1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재산(부채 포함)을 포함한 보다 정확한 소득산정을 통하여 국가장학금이 실제 필요한 대학생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되어 공정성이 높아질 예정임.



2x2=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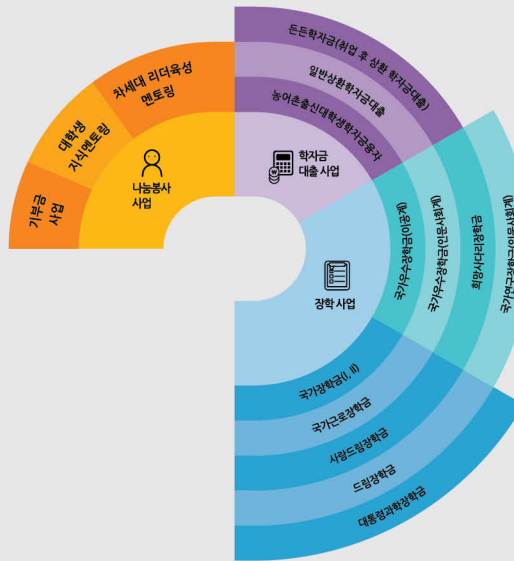
## 학자금지원 소득산정방식 변경 요약

| 구분    | 현행       |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/동의 | 신청인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동의인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, 부모 및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신청(동의)방법 | 신청(동의) 온라인(재단)              | 신청 온라인(재단) 가구원 동의 온라인 원칙          |
| 조사    | 조사대상     | 본인, 부모 및 배우자                | 본인, 부모 및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조사항목     | 건강보험료 환산소득 정보               | 가구원의 소득·재산(금융재산 포함)               |
|       | 조사방법     | 재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 산정 시스템 연계 |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자료와 금융재산(부채) 조사 |
| 결정    | 통지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| E-mail 및 sms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이의신청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의신청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그동안 일부 고액의 금융자산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던 사례가 사라지는 등 소득산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되어,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 받을 기회가 확대됩니다.

### 한국장학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

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물론 인재육성을 위한 나눔과 봉사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



「비정상의 정상화」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합니다  
콜센터상담 1599-2000 www.kosaf.go.kr

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 
정부 3.0

# 달라지는 국가장학금!

이렇게 준비하세요!

| 2015년 소득산정방식 변경안내 |

